



# 濁流清論

제10호 2010년 11월 8일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현수막 시위

1) 교문 앞 일인 시위가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 월~금, 오전 8:30~9:15 까지
- 장소 : 교문 앞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 울곡관 시위

- 일시 : 월~금, 11시 45분
- 장소 : 울곡관 1층 로비

방학 기간 중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화요보고대회>를 재개하였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솔밭에서 : 대답 후기	1
교수회 주최 총장선출안 토론회 요약	7
소식	10
언론 통제용 규칙 제정을 반대하면서	11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12

편집위원회 : 강명구(편집책임), 구형건, 김혜선, 이순일, 이재호, 한호

배경사진은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작 울곡관 앞 낙락장송입니다.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대답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학내 현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을 읽고

편집위원회

<탁류청론>은 총 6회에 걸쳐 대학의 거버넌스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4회는 거버넌스의 구체적 행위자들인 재단, 총장, 교수회, 그리고 보직교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2회는 이 토론들을 총정리하여 현 학내사태에 대한 대담기사를 다루었다. 그 마지막 순서로 이번 호는 김준한, 김철환, 임한조 세 분 교수님들이 지난 9호에서 나누었던 대담에 대한 네 분의 소회를 옮겨보았다. 대담토론만큼이나 현 사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 같음과 다름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같음과 다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안타까움이였다.

“이사장께서 ‘교수들이 왜 학교 일에 나서느냐?’고 하신다는데, 정말 제발이지 학교 일에 나서지 않고 피켓팅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연구나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김혜숙) “아름다운 교정을 유유자적 홀로 거니시는 이사장님과 진심어린 존경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김장훈) “재단이 지금과 같이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막는 태도를 취하고 독주를 강행한다면 분규는 계속되고 학교 발전은 난망할 것이다. . . .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일로매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그야말로 소모하고 있다.” (조성을) “많은 교수들이 허비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고도 학교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가망치 않은 것이다.” (박영동)

안타까움은 사랑과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동시에 안타까움은 희망을 향한 간절한 바람인 것이다.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됩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 대학의 정신과 개개인의 힘

사회과학부 김혜숙 교수

현재 우리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 교수님들 중 누구도 마음이 편한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 문제를 생각할 때면 무거운 마음으로 되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세 분의 대담에 대한 의견을 적어달라는 <탁류청론>의 요청에 무거운 마음도 정리할 겸,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세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나 대담에 관한 의견 자체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 의견과 심경을 토로하는 글로 될 것 같습니다.

대담의 사회를 보신 강명구선생님께서 세 분이 각자의 칼라를 드러내어 세 가지 다른 모델을 제시해 준 대담이었다고 정리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세 분의 의견은 전략적 측면이나 생각의 강도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세 분 모두 현 학내 갈등이 재단이사장의 대학구성원들을 ‘아래 사람 썸’으로 보는 물이해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의 문제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 박종구 총장 직무 대행이 학교로 돌아온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교수회가 현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또한 대학은 공익 기관이므로 대학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학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때로는 외부에 학교 문제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무엇보다도 학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의 노력, 혹은 김우중 씨 등 외부와의 의사소통의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세 분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 분이 다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철환선생님께서 교수회의 집회나 매일 점심 시간의 피켓팅이나 아침에 교문에서의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김준한선생님은 탁류청론에서의 글이나 사회대 회의를 통해 재단에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줄은 알았으나 집회 등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으며, 임한조선생님은 거의 제가 직접 만나 보지도 못하고 또한 여러 모임에서도 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면에 있어 세 분의 생각은 그리 다르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점을 저는 희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교수회의 화요 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일지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단이나 총장직무대행의 행태에 찬성으로 들

아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교수님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내 사태가 너무 오래 끌다 보니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재단이 원하는 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회 운영자들께서도 좀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더 높은 단계의 소통·결집의 노력과 그를 통한 행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회 집행부(혹은 교수회 대의원회)는 교수님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을 대표해서 교수님들이 잘 모르는 학내 문제에 대해 좀더 가까이에서 조사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므로 여론 이끌기 기능도 또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보직자도 아니면서 혼자서 학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뒷방 늙은이(?)가 낫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재단이사장의 ‘교수들이 왜 학교일에 관여하느냐?’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이거나 혹은 지나친 폄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일 일이다’는 말에 동감하며, 집회뿐 아니라 재정문제 검토, 총장선임절차문제 검토, ‘탁류청론’ 발행 등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이야말로 이러한 명제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신념과 용기있는 실천적 행동만이 비록 작고 더딜지라도, 결국은 (대학) 사회 내 비민주성과 부당성을 근절하고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교직 시험을 준비하던 한 이십대 교사지방생이 시험 한달 전에 무책임하게 과목을 폐지해 버린 당국에 항의하여 온라인 및 길거리 저항을 끈질기게 실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제정하도록 이끌어 낸 사례를 많은 교수님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겨우 화요모임과 점심 피켓팅에 참여를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다른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저는 그분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죄송스럽게 느끼게 될 뿐 지나친 독단적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 ‘교수들이 왜 학교 일에 나서느냐?’고 하신다

는데, ‘정말 제발이지 학교 일에 나서지 않고 피켓팅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연구나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라는 항변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총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어 왔음에도, 재단은 이제 범정신은 무시해 버린 채 ‘총장 선임 권한은 법인에 있다’는 형식적 법 논리만을 내세워 들도 보도 못한 비민주적 ‘총장선출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들이 마음편히 ‘아무 관여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아래 사람들이) 무슨 건방진 간섭이나’, ‘교수회 만날 필요 없다’는 식의 옹졸하고 폐쇄적이며 자신감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급기야 이전보다 더 못한 퇴행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여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립대 전환’의 호소를 시도하는 교수들의 일부 움직임은 실현이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재단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일 수 있습니다. 재단과 학교가 보다 통 크고 자신감있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대의기관이자 여론 선도 기관으로서 아직도 많은 교수님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지만, 한편 대담에서 선생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교수님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회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 운영진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교수회가 단과대 교수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교수님들의 요구와 필요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동시에 행동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학교의 펀드투자 문제가 미디어에 노출 된 사건을 두고 학생회(물론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를 비판하고는 있지만)나 동창회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별일 아니다’, ‘으레 그렇다’ 라고만 하지 말고 학생들, 동창회 그리고 직원 노조와도 좀더 폭넓게 연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수님들이 지엽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회와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교수회 운영진이 학교 발전을 위해 진정성있고 일관되게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고 행동한다면 어떠한 전략과 방식을 채택하든간에 구성원들 개개인의 결단과 행동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을 정신과 희망이 살아 있는 역동적 삶의 터로 만들 수 있음을 믿어 봅니다.

## 배려와 소통을 향한 첫걸음을 기대하며

건축학부 김장훈 교수

내가 지금껏 살며 간직해온 신조 중의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른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으니,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누구든 남너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 지식의 많고 적음, 피부색이나 생김새, 그 무엇을 막론하고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과의 다름이 전혀 없을 것이라 여겨졌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러했다.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는 무관한 사안들이었고, 내 개인의 자세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나를 넘어 내가 속한 집단으로, 작게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나 인류까지, 관계가 확대되면 이것은 단지 내 생각 속에 맴도는 하나의 신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보아왔다. 우리대학의 학내 현황을 놓고 선배교수님들이 나눈 말씀을 읽으면

서 재단과 교수회 사이에는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가로놓여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어려움은 재단과 교수회가 ‘아주대학교’를 관심의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서로 간에 공유하는 바가 없거나 적다면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만으로도 좋은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쁜 관계는 피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또는 전부를 공유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를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속성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학내 현황을 진단하는 세 분 선배교수님들의 대담을 보면 원론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상당히 근접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본다. 대담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학내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재단 측에 있다는 의견과 재단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교수회에게도 있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학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도 전적으로 재단 측에 있다는 의견과 양쪽이 다 문제가 있지만 대화를 위하여 교수회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는 교수회 구성원간의 소통은 과연 원만한지에 대하여 교수회가 승진 등의 사안도 다루어 교수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아주대의 국립대학화 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우리대학의 운영구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이상으로부터 대담의 키워드를 짚는다면 아마 배려, 소통, 운영구조일 것 같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나의 행동을 삼간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을 것인데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호의적인 태도 또는 적어도 대등한 힘을 가진 양자 간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호랑이에게는 토끼를 배려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토끼가 호랑이를 배려하는 방법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것밖에 다른 무엇이 또 있을까? ‘소통’의 문제 역시 배려와 비슷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약자가 강자에게 다가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강자가 약자의 사정을 알고자 먼저 손을 내미는 것보다 실현 가능하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재단은 배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배려와 소통의 주체가 아닐까? 대담 중 이에 대한 문제로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이사장님을 상대로 설득,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어려운지 “벽에 부딪혀버린 기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이사장님을 대하는 교수들의 태도가 회사에 근무하실 때 만났던 부하직원들의 태도와 같이 깎듯하고 공손하지 않아 버릇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암시가 대담의 곳곳에 묻어난다. 아울러 이사장님은 “우리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 어른으로 존경받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다. 그런데 대학의 구성원들 역시 진심으로 존경하고 싶은 어른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사장님은 아시는지? 회사에 계실 때 부하직원들이 앞에서 머리 숙인 것이 과연 진정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을까? 회사의 직원들처럼 굽실거리지 않는 교수들이 과연 버릇없고 막돼먹은 사람들일까? 이사장님에게 묻고 싶다.

아울러 대담에서 거론된 것은 교수간의 소통, 바꾸어 말하면, 과연 교수회가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 내지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다. 여기서 언급된

구체적인 예가 최저 승진임용 요건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최초 임용 시 제시된 승진요건이 승진임용 심사 이전에 계속 상황 조정되어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게 되거나 승진임용 심사 시 문서화 된 승진요건보다 높은 조건을 적용하여 탈락되는 당사자의 황당한 심정에 교수회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는지? 적어도 승진임용 심사규정은 예측 가능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운영구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대학을 지배한다는 말 자체가 적절치 않게 들리지만, 대학을 대학답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을 누가 하는가를 뜻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영이나 행정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최고운영권자는 효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소개된 권한 위임의 한 예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당시 백성들의 먹을거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맡아 처리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장인인 이드로가 제안하여 백부장과 천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백성도 좋아하고 모세도 숨을 돌리게 된 이야기가 있다. 지금처럼 재단이 대학의 모든 영역과 일상적인 업무까지 일일이 챙기다보면 의사결정도 느려지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도 역동적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대학의 현안을 걱정하는 세 분 선배교수님들의 대담을 보며 느낀 점을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학교에 해교행위가 되기 전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안 나가도록 일을 해줘야 한다.”는 충정어린 충고에 재단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이 직면한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낙엽이 덮인 아름다운 교정을 유유자적 홀로 거니시는 이사장님과 진심어린 존경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인문학부 조성을 교수

박종구 전차관의 정년보장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시작된 학내 분규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사태는 해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점점 악화일로를 걸어서 이제는 거의 상호 소통 불능 상태에 이른 것 같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한다. 본인은 표면적으로 알려진 일들 외에 구체적 진행 과정은 잘 모르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앞서 밝혀두고 싶다. 처음 박종구 전차관의 부총장 및 정년보장 교수 임명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였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즉 행정직으로서 박종구 전차관을 부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년보장 교수 임명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데에 더하여 위인설관적 성격이 있으므로 후자를 철회하기만 하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견해를 다른 교수님들과 나눈 적도 있었다. 저간의 사정은 잘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덧붙여 신입 총장 선출에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문제 및 신입 총장의 자격 시비와 그로 인한 사퇴로 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가 벌어질 당시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구체적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2010년 1학기 말까지는 다시 새로 임명된 총장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총장 유고에 의한 대행 체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 많아도 몇 달을 넘지 않아야 하는 임시적 조치인데 유고가 거의 두 학기가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총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도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으나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재단 측에 있다. 달리 말하면 재단은 그 소임을 방기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겠다.

현재 교수회에서는 이사장과 총장대행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교수들이 문제의 해결을 실재상의 “교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께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본인은 마침 탁론청론 9호에 실린 대담 기사를 읽게 되고 이에 대한 독후감 기사 청탁을 받았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 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대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 재단 및 학교 당국과 교수들의 소통의 부재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수회는 학교의 공식 기구로서 학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당국이나 재단 측에 전달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소통이 어렵더라도 계속 공식적 절차를 걸쳐 교수회의 의견을 학교 당국과 재단 측에 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교수회의 의견에 대해 학교 당국이나 재단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교수들의 협조 없이는 대학은 순조로운 발전은 물론 원만한 운영조차 불가능하다. 또 교수회는 상대방이 아무리 대화를 회피한다고 해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단은 현 이사장 및 이사회와 총장 대행을 대화의 파트너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김우중 대우그룹 전회장은 우리 학교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아무 직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교수회와 일반 교수들과의 소통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교수회와 일반 교수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일반 교수들을 대표하는 것이 교수회이기 때문이다. 교수회의 장은 교수들이 선출한 교수들의 대표이며 여러 대의원들도 각기 소속 대학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교수회의 의장과 대의원들이 일반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불만만 점은 아직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교수회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교수회가 교수들을 대표하는 공식기구임에도, 개별적으로 재단이나 학교 당국자를 만나 말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는 모두 뉘뉘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 절차 즉 교수회를 걸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의 국립화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문제 제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말로 대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국립화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도 본인은 의문이다. 더욱이 지금 국립대학을 법인화를 하려는 움직임, 그에 대한 지지 여론도 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교수회에 의안을 상정시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모든 일을 원칙에 서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지금 얽혀 있는 문제들은 현재 총장대행이 정년보장 교수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것은 차기 총장 임명 문제와는 일단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 총장 임명은 학내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 현재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모셔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다섯째 일부 교수님들 가운데 원칙보다는 실리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원칙에 입각한 뒤에 실리를 추구해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원칙을 저버리고서 과연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회가 필요한 인재는 능력을 갖추어 더불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며 이런 능력이 대학 교육 중 충분히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재단 측에 교수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을 진정으

로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재단은 법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함에도 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관련되는 분들의 협조 여부와 큰 관계가 있다. 재단이 지금과 같이 구성원의 의견에 귀를 막는 태도를 취하고 “독주”를 강행한다면 분규는 계속되고 학교 발전은 난망할 것이다. 이것은 재단은 물론 학내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재단과 교수회 양쪽 모두에 있다. 지금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일로매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그야말로 “소모”하고 있다.

##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자연과학부 박영동 교수

김준한, 김철환, 임한조 등 세 분의 교수님께서 약간은 견해가 다른 점을 피력하셨지만 그 근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우 학원 이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쌓은 잘못된 기록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차피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방안보다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니 수고에 수고로 조율해 가면서 바꿀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비단 위의 세 교수님 뿐만 아닐 것이나, 또다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떤 두 사람의 의견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세 분 모두 학교를 위해서 지극 정성으로 봉사해 왔다는 것이다. 세 교수님들처럼 지극 정성으로 하지 않는 제가 감히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매우 송구스럽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세 분의 교수님이나 또는 가장 적게는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의견을 내는 것을 헛수고 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학교의 활성화도 점차 희미해 지는 것 같다. 수고를 하거나 안하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면 차이가 없을 것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학교는 계속해서 지금껏 진행해온 것처럼 내리막으로 갈 것이고, 뽀족한 수가 없으니, 엄청난 고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마음 속 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럴 것이 학교의 경영진이 달라질 희망이, 또는 개선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자연과학대학을 살펴 보아도 그렇다. 학장이 거의 부재한지 두 달이 넘고 있지만, 이사회나 총장 직무대리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시도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좋게 여기는 자연대 교수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연대 교수들의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학장 부재 사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교수들이 허비되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고도 학

교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가당치 않은 것이다. 한가지 위안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학교가 경영되고도 금방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교 같은 처지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학교의 경영자들은 그런 학교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다. 누구든지 그보다 약간 나은 학교를 살펴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학교가 좋아지는 것은 웬만한 경영자만 있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인생에서 누구나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이루기를 원할 것이다. 직접 만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윤원석 이사장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교수들이 교문 앞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잘 하기에 교문 밖에 만나간다고 오해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가 어떻게 학교에 기여했는가는 모두가 잘 보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는 고유 책무를 전혀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결론이다. 여기까지는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다른 희망을 가지라는 절대 비판론을 펼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교수님들도 계신다. 저도 지금은 후자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저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 분도 지으셨다고 믿는다. 제 믿음이 옳기를 바란다.

## 교수회 주최 총장선출안 토론회 요약

### 교수회

지난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약 두 시간 가량 교수회 주최의 '총장 선출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본 공청회는 2009년에 교내 구성원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의 합의 하에 완성된 총장선출안과 최근 재단이사회 측에서 제시한 총장선출안을 비교 논의함으로써 올바른 총장선출안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날 교수, 직원, 학생 등 50여명의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먼저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교수의 두 안에 대한 해설과 비교 논의의 시간이 있었고, 이어 질의 응답과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 교수의 설명과 질의 응답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논란이 되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회 참여자들 중 다수가 재단이사회 안은 심의위원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학생과 직원 참여의 제한 조건, 소극적 공고 안들이 진정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내년 2월 졸업장에 직무대행의 명칭으로 도장이 찍히는 어이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초에 총장 선출 공고를 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2-3달에 걸쳐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 2009년 제 단체 합의안을 그대로 채택하자. 현 재단 측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 본 토론회를 통해 어떤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교수회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재단 측은 그런 노력을 무시할 것이고 이제는 구성원 나름대로의 총장 선출을 시도할 때다. 예를 들어, 신문에 총장 선출 광고를 내어 교내 구성원들이 독자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 12년 간 제대로 임기를 마친 총장이 한 명일 정도로 총장 선출에 실패한 재단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재단이사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학생들도 현재의 총장 선출 지연에 큰 불만을 갖고 있고 교수님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함께 구성원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도 힘을 보태겠다.
- 재단이 여러 해 동안 사학연금 등을 부담하기 위한 법정 전입금을 내지 않았고 그 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서 빼오고, 학교에 대한 투자의욕도 없고, 분식회계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등, 이런 상황들이 신입 총장 선출 과정에도

	2009년 합의안	2010년 재단이사회 안
기구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교내구성원의 제청권	3인 추천	제청권 없음
학생 참여	선출위원회에 학생 2인 참여	선발위원회에 학생 참여 배제
직원 참여	선발위원회에 3인 직원 참여	선발위원회에 5급 이상 4인 참여
선출규정	2/3찬성 3인 추천	규정 없음
공고	학내외 언론 매체	교내 홈페이지

나타날 것이 우려되므로 구성된 한마음으로 투명한 선출과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 안들과 비교해보면 보다 분명하게 재단이 제시한 총장선출안의 문제가 눈에 보일 것이다.

여기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교의 현재 총장 선출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여러 경우들을 읽어보고 현재의 선

< 총추위를 통해 추천하는 사립대학 >

항목	고려대		건국대		배재대	
	공통	소양과 덕망/ 건학이념,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원리 존중, 국제적안목과 경영능력	공통	소양과 덕망/건학이념 존중/국제적안목과 경영능력/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 없는 자	공통	건학이념 존중 / 경영능력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 없는 기독교인
자격 및 후보 대상자 추천	본교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임 교원 50인이상추천		본교 10년이상 재직하고 전임교원 20~30인의 추천		본교에 10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정교수	
	교내외 인사로서 전임교원 및 교우회 임원 500인 이상의 추천		대학총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부인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	
	총추위 4인 이상 추천				현직 총장이 중임을 원할 때 임후보 가능(1회)	
	정해진 유관기관과 저명인사에게 추천 의뢰				현직 법인이사장과 그의 직계 존, 비속은 자격 제한	
	법인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초빙위원회 추천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교수대표 15인(단과대학별로 선출)		교수대표 26인 (단과대학별 1~3인+교협 추천 2인)		교수대표 10인(5년이상 재직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 선출)	
	직원대표 3인		직원대표 9인		직원대표 3인	
	학생대표 3인		학생대표 4인		학생대표 1인	
	법인대표 4인		법인대표 및 사회지도층인사 5인		교단대표 2인	
	교우회대표 5인		동문회대표 5인		동창회대표 2인	
	총 20인		총 49인		사회인사대표 1인 (총 19인)	
후보자 추천	3~5인 (가능한 한 외부인사 포함)		3~5인		3인 (응모자중 외부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 포함)	
기타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단수인 때에는 법인이사장은 그 1인 외 후보자를 적의 추천할 수 있다.	

기타 : 국/공립대 경상대, 경북대 직접선거 (학생과 직원에게도 일정 비율 선거권)

## &lt; 선거를 통해 추천하는 사립대학 &gt;

항목	연세대	중앙대	영남대
자격 및 입후보	건학정신과 기독교 존중.	10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전임교원
	-정년 전에 법정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교육 공무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관위에 등록하여 예비선거에서 득표순위 5위 내에 든 자.	학계, 정·관계에서 탁월한 업적과 경륜/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로서 30인 이상의 학내교수 추천을 받은 자  정년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덕망, 교육경력, 학원관리 능력이 탁월한 외부인사로서 전임교원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선관위	- 위원장 : 평의회 의장 - 위원회 : 평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21인	교수협의회 대의원회에서 11인 선출	- 위원장 : 평의회에서 정함 - 위원회 : 교수회 평의회에서 각 단과 대학 및 독립된 학부·전문대학원별로 1명씩 추천받아 구성
선거권자	<b>재직중인 전임교원</b>	1년 이상 재직중인 <b>전임강사 이상</b> 의 전임교원	- 교수회 회원 ( <b>전임강사 이상</b> ) - 특별히 정한 비율의 <b>정규직원</b>
후보자 추천	본선거 <b>득표순위 상위 2인</b>	<b>득표순위 상위 3인</b> - 동점일 경우, 1)교수:임용기간이 긴 순 2)외부인사:연소자순	<b>최다득표자 1인</b>
기타			

항목	한신대	원광대
자격 및 입후보	- 자격 : 건교이념을 존중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본교 교수, 부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을 겸비한 자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자
	- 입후보 : 교수평의회 추천2인, 학생회 추천 2인, 직원노조 추천 2인, 재직교원 1/4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 <b>예비선거</b> : 입후보자 중 전체교수회의에서 3인 선출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정교수  타대학 총장 역임자,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경험이 있는 자, 대기업의 CEO로서 본교 전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선관위	-위원장 : 교수평의회 의장 -위원회 : 교수평의회에서 선출한 평의원 6명	-위원장 : 위원회에서 선출 -위원회 :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에서 10인 이내로 선출
선거권자	<b>전체교수회의</b> 의 회원(전임강사이상)	<b>전임강사 이상</b> 의 교원
후보자 추천	전체교수회의에서 본선거로 <b>2인 선출</b> (연기명)	<b>재직교원 10%이상</b> 기명된 피선거자 전원
기타		

# 소식

## I. 총장선임안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12시부터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학보사 기자를 포함하여 교수, 직원, 학생 등 50여명의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약 두 시간 가량 교수회 주최의 '총장선임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본 공청회는 2009년에 교내 구성원들의 제 단체, 즉,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병원노조 등의 합의 하에 완성된 총장선출안과 최근 재단에서 제

시한 총장선출안을 비교 논의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토론회의 발언 내용은 **본보 7쪽 요약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II. 총장선임 관련 진행상황

현재 재단과 교수회 집행부 간의 대화가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추천위원회 가동을 위한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

수회 대의원회는 11월 8일(월) 그간 진행된 논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 III.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

그간 대학평의원회가 요청한 내부감사 시행안과 대학본부의 개최되었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외부 감사가 진행된 후 내부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내부감사가 진행되지 못 하던 와중에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의 펀드 투자와 관련 회계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교과부 감사가 결정되었다. 감사는 11월 20일 전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난 10월 22일

개최되었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외부 감사가 진행된 후 내부감사 시행 필요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IV. 자연대학 학장 선임건

학장 후보를 교수 투표로써 정하여 추천해오던 자연대학 교수들의 전통을 재단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이 무시함으로써 발생한 자연대학 학장 선임 거부건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수들에 의해 추천된 학장 후보 대신 연임 발령을 받은 전임 학장이 보직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2개월 이상 수리되지 않고 있으며 총장직무대행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박종구 전차관을 상위법과 위배되는 과정을 통해 무리하고 졸속적으로 정년보장 정교수와 교무부총장으로 임용,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학장직이 공석이 된 사회대학과 더불어 기초교육대학장 포함 세 곳이 학장 유고사태인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아주대학의 '불편한 진실'이다.

# 언론 통 제용 규 칙 제 정을 반 대하 면 서

대학본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홍보물 게시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 현재 교내 여론 수렴이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규칙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홍보내용은 신고해야 하고, “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장 7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게시시간이 경과”하거나 “대학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비방성” 홍보물 등은 “사전경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퇴행적 행위에 대해 인문·사회대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학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은 자유다. 그 중에서도 으뜸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대학은 지성을 추구하는 열린 공간이다. 비판은 창조적 지식을 생성하는 생명수다. 대학은 효율성을 갖대로, 위계적 통제를 수단으로 삼아 발전되는 조직이 아니다. 자율에 의해 스스로 통제되는 곳이다. 언론 통제, 이는 대학이 대학임을 부정하는 행위다. 어떠한 고매한 용어로 치장해도 ‘규칙’의 목적이 언론 통제에 있는 한 대학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그 자체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불명예다. 대학사회에서 언론은 시간을 거치면서 자율적으로 정화된다. 우리 대학교수들은 성찰과 비판, 그리고 자율과 창조의 공간을 가꾸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여기에 아주대학교 학생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 제정의 시도는 대학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원론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전임 총장 재임 시 재단이 교수회가 내건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대학본부에 압력을 행사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총장직무대행체제는 이러한 그릇된 시도에 동의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헌법적 권한을 통제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대학은 총장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총장직무대행은 부하노동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총장이라는 직함은 단순히 대학행정의 수장 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총장은 비판과 창조의 혼 불이 대학사회에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대학사회

가 총장을 민주적이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재단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대학은 비판과 성찰과 수평적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조직이다. 힘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통하지는 않는 곳이 대학이다. 설득하려 들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라. 누르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 하지 말고, 말기고 양보하라. 그러면 우리대학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아주대학교 인문대/사회대 교수 54인

강충권,곽명숙,김미현,김민규,김봉철,김용현,김종식, 김태승,김현옥,문승재,문혜원,박구병,박만규,박재연, 박정식,손정훈,송현호,이상국,전윤수,정경훈,정재식, 조광순,조성을,조하현,한 호

강명구,공유식,김경일,김동근,김서용,김성환,김영진, 김완석,김용진,김은정,김정호,김준환,김철환,김혜숙, 김호섭,노명우,문우진,박성빈,배상석,신강현,신희천, 안재홍,양한순,이경호,이규상,이선이,이왕휘,최은경, 최희갑



##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위원회

탁한 세상사 가운데서도 맑은 정신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름을 지은 <탁류청론>은 작명이 문제인지 아직도 탁류를 거슬러 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사는 둘째치고 우리가 몸담아 학문정신과 육체의 양식을 기대고 있는 대학이 참으로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교수들을 대표하는 학장들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이 년 여 가까이 유고(有故)상태임에도 대학이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곁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굼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학장이란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그저 그런 유명무실의 존재던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형식논리를 갖추었더라도 누가 봐도 뻔한 편법에 편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참으로 얼굴 뜨겁게 억지춘향으로 10여 년 전 한 때 경제학 전공 교수였던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학 전공 교수로 부임하더니 강의 한 번 아니하고 부총장이 되었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한 술 더 떠 총장유고사태를 틈타 직무대행이 되고 그 기간이 무려 1년이 되어갑니다. 한껏 욕심을 부려 총장이 되려고 갖은 잔피를 부립니다. 학장 없이도 단과대학이 굴러가고 총장 없이도 대학이 굴러가니 아마도 총장 또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총장 무용론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인사가 스스로 총장의 자리를 탐

하는 이 역설을 어찌 설명해야 좋을까 참으로 난망하고 민망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물줄기가 재단이사장 (혹은 재단 이사장의 상전)으로부터 발원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6명의 총장이 아주대학을 오고 갔습니다. 얼마큼이나 일을 잘 했는가에 대한 설왕설래는 한 수 접어두더라도 제대로 임기라도 마친 인사는 서문호 전 총장 단 한 분입니다. 이런 혼란이 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한 마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고도 내 학교니 내가 정한 정관에 따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 발상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탁류청론> 11호는 흠탕물결을 거슬러 과거 총장선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당시 총장선임 과정 참여 하였던 교수 분들이 생생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신임총장 선임에 대비하여 맑은 눈으로 잘 살펴보고 곧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사태에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김우중 설립자는 지난 10여 년간 재단의 실패를 직시하고 이사회와 총장선임제도를 혁신하여야한다!
2. 윤원석 이사장은 지난 10여 년간 대학의 퇴보와 현 학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여야한다!
3. 박종구 직무대행은 불법임용교수이며 학내 사태 원인제공자이므로 즉각 퇴진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